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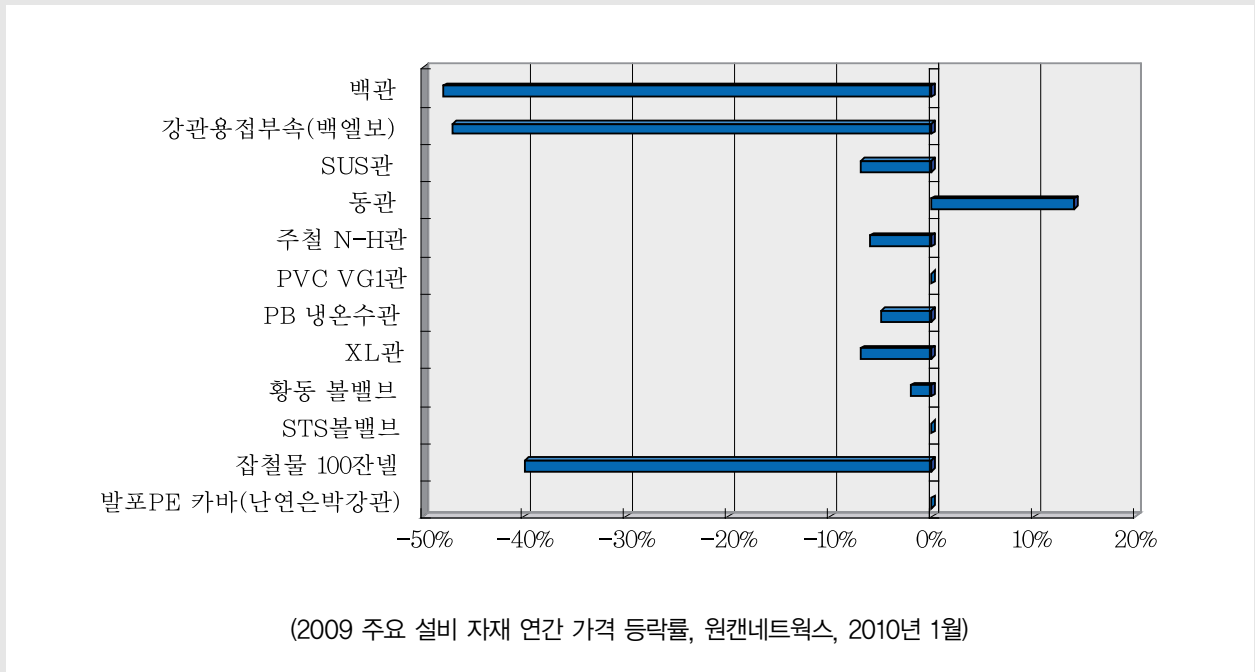
경인년 자재 전망

김현회 / 원칸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2009년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직장인들은 口腹之累(구복지루:먹고 살 걱정)를 꼽았다. 그만큼 지난 해는 그 누구에게도 순탄치 않았다. 우리 설비건설업계 역시 그 삭풍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2010년은 苦盡甘來(고진감래:고생 끝에 즐거움)의 시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2010년 설비 자재 가격은 아래 월간 및 연간 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건설 경기의 활성화 여부가 그 목줄을 쥐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09년 12월~2010년 1월 자재 동향

자재 및 원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12월에도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이 소폭 오름세 보임. - PVC제품을 제외하고는 환율의 하락과 실 수요 물량의 축소로 단가 인상 요인을 실물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가격 인상에 발 맞춰 전기동 및 전기연 등의 가격이 소폭 인상됨. - 이에 따라 동관 가격은 다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음. 예년과 비교하여 볼 때 이상 현상으로 판단되며 시장에서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STS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S관은 11월과 마찬가지로 12월에도 소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음. 대리점들의 과다한 물량 확보로 인한 단가 하락 요인이 있어 단가 추이 지켜봐야 할 시점임.
PVC 관련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들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아직도 메이저 제조사들이 단가 인상에 대한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음. - 제조사들 중 일부는 강력한 단가 인상을 주창하고 있는 상황임. - 환율과 유가 급등이 있을 경우 기존 단가를 고수하던 제조사도 단가 인상 가능성 농후.
강관 관련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강관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 가고 있음. - 제조사들의 강력한 단가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실수요의 위축으로 단가 하락이 진행되고 상황임.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단기 물량 모두 각 회사의 현장 공정 상황에 따라 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수시로 전략을 변경해야 할 시점임.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해 주요 설비 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물론 2008년에 지나치게 급등했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거기에 금융위기 한파로 경기가 급랭했고 특히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자재 수요가 크게 위축된 것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도 자재 가격은 결국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재기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건설 경기의 활성화에 달렸다고 판단된다. 지난 호에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국제 원자재는 달러 캐리(가치가 하락한 달러를 싼 금리에 빌려다가 원자재 등에 투자)라는 측면과 원자재 사재기 등으로 인하여 다소 거품을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설비 자재의 경우는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라 동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리거나 보합세를 유지했다. 결국 대부분의 자재는 가격 상승 요인을 가슴에 품고 건설경기의 봄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아직 봄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4계절이 변함없이 찾아오듯 설비 건설 시장

도 상반기 중에는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설비 자재 가격의 상승 국면이 도래할 것이란 점은 자명한 이치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칸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에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